

우리의 **국외 사역**

큰은혜교회 

최정선 목사 (한국)

히라가타 순복음교회 

박경복 목사 (일본)

아가페교회 

윤상현 선교사 (필리핀)



컴패션과 함께 양육하는 16명의 아이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BRIANA	ESTEFANI	CAMILA	EMELY
GENESIS	NANCY	JENNSY	GAEL
JOSUE	ROBERTO	LIA	OSCAR
LUIS	YEFERSON	ORIANA	VALENTINA

우리의 **국내 사역**

홀리스 아웃리치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는 돌봄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산호세 St. 제임스 파크

지교회 (솔라노 큰빛은혜교회)

솔라노 지역 바카빌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랑스러운 교회

주일 예배 시간: 오후 1시

장소: 78 Peabody Rd, Vacaville, CA 95687

캠퍼스 사역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깨어있는 시대정신과

영성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 사역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De Anza college

어라이즈 워십 & 악기클래스

베이지역에 찬양의 향기가 울려 퍼지며,
악기레슨을 통해 1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교육관

MISSION STATEMENT

Bay Area Full Gospel Church
W.O.R.L.D. VISION

Worshiping Church

예배하는 교회

Oikos Church

소그룹 교회

Reaching Out Church

돕는 교회

Life Giving Church

살리는 교회

Discipling Church

제자삼는 교회



 
큰빛은혜교회를
검색해보세요

주 일 1부	오전 9시	본 당
주 일 2부	오전 10시 30분	본 당
주 일 학 교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금 요	오후 7시 30분	본 당
새 벽	오전 6시 (월-금)	교육관 / YouTube Live

Bay Area Full Gospel Church

큰빛은혜교회

**Be still,
and know**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웹 바로가기

Senior Pastor

담 임 목 사 이기봉

Asistant Pastor

교 육 전도사 김태아 임성호 김승연
Sam Kim Grace Kim

지교회 전도사 이중록

 큰빛은혜교회

415 317 4631

www.bafgchurch.org

bafgchurch@gmail.com

125 E Arques Ave, Sunnyvale, CA

제 5호 26권		Vol. 5 No.26	6.28.2026	
여는 기도			이중록 전도사	
Opening Prayer			Jungrock Lee	
경배와 찬양			다같이	
Worship and Praise			Together	
대표 기도			김예원 성도	
Representative Prayer			Yaewon Kim	
말	씀	그 피의 무게	담임목사	
Sermon		베드로전서 1장 18~19절	Serior Pastor	
합심 기도			다같이	
United Prayer			Together	
봉헌및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같이	
Offering			Together	
광 고			담임목사	
Announcements			Serior Pastor	
* 찬	양	삼중 축복	다같이	
Blessing Song			Together	
축 도			담임목사	
Benediction			Serior Pastor	
* 자리에서 일어나서		78		
* Please stand				

기도 순서

	6/28(연합)	7/5(연합)	7/12	7/19	7/26
1부	—	—	임성호	김보라	김태아
2부	김예원	주보배	왕성균	우빛나래	김종길

1. 청년부, 유스 수련회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성찬 예배
다음 주주일(7월 5일)은 성찬 예배 및 2부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천하제일 볼링대회
일시: 6월 28일(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Homestead Bowl
(20990 Homestead Rd, Cupertino, CA, 95014)

4. 하계 부흥 성회
주제: “성령과 동행하라”
일시: 7월 10일(금) ~ 12일(주일)
강사: 장창영 목사 (빛과소금의 교회)
장소: 본당

5. 가정예배지
홈페이지에 가정예배지가 업데이트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7월 생일	9일	진영아 성도	26일	김수경 성도
	10일	박소려 집사		
	17일	이기봉 목사		

7월 성찬위원

김용현, 김아론, 김대환

이번주 새벽기도회

월	화	수	목	금
열왕기상 2:13-25	열왕기상 2:26-35	열왕기상 2:36-46	열왕기상 3:1-15	열왕기상 3:16-28
Grace Kim	Sam Kim	이중록	임성호	이중록

6.28.2026

6·25 전쟁을 기억하며

매년 6월 24일 밤과 25일 새벽 사이,
우리는 가슴 한편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의 평화가순식간에 깨어졌던 그날로부터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포성은 멈쳤고, 폐허가 되었던 강산은 세계가 주목하는
발당숲과 번영의 터전으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달고 선 이 평화의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익숙함에 가려진 평화의 무게>

오늘날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과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거리의 활기, 밤늦도록 안전한 골목길,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일상.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당연해서 마치 공기처럼 느껴지곤 합
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일상은 결코 값없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70여
년 전, 낙동강 전선에서, 장진호의 혹한 속에서, 이름 모를 고지 위에서 자
신의 가장 눈부신 청춘을 바쳐야 했던 수많은 국군 장병과 UN군 참전용사
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
순히 ‘땅’이 아니라, 후손들이 누릴 ‘자유’와 ‘미래’였습니다.

<멈춰진 시간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점차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
다. 교과서의 한 페이지, 혹은 매년 돌아오는 기념일의 행사로만 6·25 전
쟁을 기억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
다. 여전히 휴전선이 존재하고, 수많은 이산가족의 아픔이 가시지 않았으
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는 것
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입니다. 철학자 조시 산
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과거를 되풀이하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라 사랑과 앞으로의 과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
하는 실천입니다. 물질적 보상을 넘어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기억하는 문
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통합과 평화’로의 나아감입니다. 6·25 전쟁
이 남긴 상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
도록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6월의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과거의 누군가가 미래를 위해 지불한
가장 거룩한 청춘의 대가입니다. 이번 6·25 전쟁 기념일에는 화려한 도시
의 불빛 뒤에 숨겨진 그날의 포성을, 그리고 그 포성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들의 뒷모습을 잠시나마 담담히 추모해 보았으면 합니다.